

韓國統計의 現況과 將來—統計와 電算

〈討 論〉

朴 聖 炫*

허문열박사에 의하여 분류된 EDP의 3 단계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우리나라가 현재 초기단계를 벗어나 성장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다. 또한 조만간(5~6년후)에 성숙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통계 package의 사용이 급증하고 이를 다룰 줄 아는 통계인의 수요가 매우 크리라고 믿어진다.

통계를 다루는 학자 또는 실무자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통계서비스(statistical consulting service)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에 통계를 보급시키고 통계의 활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들은 또한 허문열박사의 주제논문에서도 암시되고 있는 방향이라고도 하겠다.

첫째로, 통계학회내에 통계계산(statistical computing)에 관한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통계인들이 현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가를 논의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모임에서 어떤 방향이 설정되고 구체적인 대책이 모색되면 이와같은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은 통계인 스스로를 위한 길인 동시에 크게 보면 국가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둘째로, 대부분의 대학에는 큰 통계 package(SAS, SPSS, BMDP 등)를 설치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작은 minicomputer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통계 package를 제작하여 보급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통계인들이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minicomputer에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통계 package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문교부나 과학재단, 아산재단등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셋째로, 각 연구소나 큰 기업에는 큰 규모의 컴퓨터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처리와 분석이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통계 package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과, 통계를 이해하고 통계 package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다. 따라서 통계 package의 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의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은 계몽과 교육은 누구도 아닌 우리 통계인들의 책무라고 생각된다.

네번째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학의 통계학과나 계산통계학과의 교과목에 통계계산에 대한 과목을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통계계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리라고 믿는다.

* 서울대 計算計學科

이와같은 교육을 통하여 많은 인재가 배출되면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통계계산의 보급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생각하여 보건데 통계와 전산은 상호 보완적이며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믿는다. 컴퓨터의 도움없는 통계의 보급은 한계가 있으며, 통계를 활용 못하는 컴퓨터업무는 별 유용성이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아 컴퓨터를 적극 이용하여 통계의 발전을 꾀한 적절한 때가 와 있다고 믿는다.